

서울서지방회 장로회연합회, 국내 기독교 영성순례 진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장로회가 되자” 다짐

서울서지방회 장로회연합회는 회장 김남태의 인도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국내 기독교 영성순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순례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교회의 역사와 순교 신앙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회장 김남태 장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로운 순례를 설명하면서 장로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자”고 권면했다. 출발기도는 백태현 장로가 맡아 안전한 여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이전에 도착한 후에는 이광섭 장로의 식사기도와 함께 회원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이어 한국 기독교역사박물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의 역사와 신앙 유산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전 회장이 철구 장로가 순례 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점심 식사와 카페 모인에서는 수석 부회장 장영만 장로가 기도했으며, 직전회장 김영석 장로는 좋은 만남의 자리를 축복했다.

이어 회원들은 용인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으로 이동해 송남원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삶과 헌신을 되새기며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관람 후 열린 기도회에서는 이현평 장로가 로마서 8장을 함께 암송했고, 참석자들은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전 회장 김주관 장로가 마침기도를 드렸으며,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회장 김남태 장로는 “이

서울서지방회주재기자 윤호석 목사



말씀의 초대 | 이사야 53:5

보이지 않는 해킹



박종렬 목사
사렛기예삼교회
경남지방회장

최의 유혹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실행에 옮기기까지 갈등의 시간을 거칩니다. 갈등한 후에 선한 쪽을 선택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갈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대로 직역하면,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여 갈망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여 갈망하기 때문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대적하는 싸우는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갈등의 쌍방에 대해 롬 8:6에서는 ‘육신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사탄도 이점을 잘 알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갈등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의 화살을 날립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지 않으면서도 갈등하는 이유는 이미 생각이 해킹 당했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싹뚱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똥지를 뜨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사탄이 자기 머리에 똥지를 뜨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에 악독하는 걸 아주 잘 알기에 설겜도 쉽습니다. 유대법원가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읽지는 못하지만, 창세 이후부

터 지금까지 인간을 상대한 방대한 데이터는 그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 생각을 해킹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눅 22:3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는 이유입니다.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은 전쟁터입니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나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생각이 사탄이 집어넣은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여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의 영역이 사투의 격전지이기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마음을 새롭게 하라’(롬 12:2)고 하셨습니다. ‘해 주겠다’가 아니고(너희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해킹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로 인한 갈등의 시간이 ‘순간’에 그치도록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을 그때 그때 정리해야 합니다. 주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서 싸우기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허락한 만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진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거듭난 양심의 핀셋으로 고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골 4:7) 갈등이 물러간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고, 근심 걱정, 사리사욕, 탐욕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은 ‘평안의 줄’이라 하시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하셨습니다(엡 4:3) 교단과 교회가 깨어서, 이 하나 됨을 지키는 생각의 성벽을 더 높게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지방회 여전도회연합회,

장애인의 날 맞아 성산푸른초장서 사랑의 봉사



서울지방회 여전도회연합회(회장 김남순 권사, 창신성결교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연합회는 지난 4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성산푸른초장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원장 홍금화)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 드린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로 시작했다. 이규 목사는 시편 23편 1~6절을 본문으로 “원장님의 헌신과 봉사자들의 헌신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

하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합심기도를 통해 시설과 장애인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연합회 회원들은 시설 내부 환경 정화와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훈련을 돕는 교제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장애인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가슴 깊이 나누었다.

사단법인 푸른초장복지 관계자는 “연합회가 매년 방문하여 시설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연합회 측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미자립교회 선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서울지방회주재기자 이규현 목사

교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투표참여 독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 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준수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지형은, 이하 기윤실은 5월 12일 ‘교회를 건강하게, 선거를 공정하게’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제인하며, 교회가 예배·주보·홈페이지·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함께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성시화는 지난 4월 28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선이 주민자치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마다 투표참여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참여 공명선거 10대 지침’을 제시했다.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투표하는 모범 시민임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진행된다.

마조교회 제9차 임직 감사예배

일시 2026년 6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마조교회 2층 예배당

하나님께 영광
마조교회가 아홉번째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본 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담임목사 이 광 열

장로장립



조 덕 호

안수집사



김 영 훈

권사 취임



박 명 주

안수집사



임 용 범

권사 취임



이 혜 영

안수집사



송 기 택

권사 취임



윤 은 숙



조덕호 가족



김영훈 가족



임용범 가족



송기택 가족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943번길 32 T.010-3737-2772